

토론회

북한 엘리트의 탈북 사태: 체제 붕괴의 전조인가?



일시	1996년 3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사회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토론	고영환 前 북한 황고 대사관 1등 서기관, 현 북한문제조사연구소 김정민 前 북한 대양무역상사 사장 도준호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이항구 前 보안사 북한정보분석실 실장 홍성국 통일위 제2분석실 과장 <가나다 순>



장달중

“북한은 개방과 개혁의 조
심스러운 움직임이 보이
긴 하지만, 아직도 매우
폐쇄적이고 체제·현상
유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
위기에서 시작된 탈북자
현상이 우리 눈 앞에 나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오늘은 최근 가장 관심이 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지막 남아 있는 사회주의 체제 즉, ‘잔존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탈북 사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잔존 사회주의 체제’라는 용어는 원래 70년대 말 Bahro라고 하는 동독의 엘리트 경제 관료가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을 서방 세계에 폭로한 유명한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의 현실을 꼬집어서 현존하는 사회주의의 모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70년대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는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와 현존하는 사회주의의 실상간에 갭(gap)이 컸기 때문에 그 갭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서방 세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주의 체제가 거의 다 무너졌고, 현재는 아시아에 5 개국이 있고 쿠바를 포함하면 6 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6 개국 가운데에서도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 개국의 체제는 개방과 개혁의 실험을 조심스럽게나마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심도있는 개혁·개방을 통해 생존의 봄부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북한의 경우는 개방과 개혁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매우 폐쇄적이고 체제·현상 유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 위기에서 시작된 탈북자 현상이 우리 눈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경제적 위기에서 발생한 탈북자 현상, 여기에 겹친 수재에 따른 二重苦의인 북한의 경제 현실은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 조건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부자 세습을 통한 정권 교체의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권력 이양의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친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 탈북자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탈북자 현상을 북한 체제 자체의 역기능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아야 될 것인지, 피할 수 없



이항구

“탈북자들 가운데는 지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심 계층 중의 핵심인 항일 투쟁 참가자의 자손들이 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는 현상이라면 이것이 김정일 정권의 취약 내지 붕괴,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수재라든가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일시적인 북한 체제의 위기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탈북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으니까 북한 사태 전반에 대해서 이항구 선생님께서 그동안의 경험과 느낌을 종합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항구 솔직히 말해서 두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만 이야기해도 1시간 내지 2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리해온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층부의 탈북 사태가 오늘의 의제인데, 상층부라고 하면 여기 오신 김정민 선생님이나 고영환 선생님은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 가운데 상층부에 속하는 것 같고, 강명도, 조명철·최수봉 일가, 현성일 부부, 차성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지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심 계층 중의 핵심인 항일 투쟁 참가자의 자손들이 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현성일같은 사람은 조부가 김일성 빨치산에 1935년 입대해서 1938년에 전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탈북 사태가 체제 붕괴의 전조인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탈북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넘어왔느냐 하는 것을 잘 보아야 될 것 같고 둘째, 현재 북한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고, 탈북 문제가 그 요인들에 얼마나 손상 작용을 할 것이며, 특히 북한에 살고 있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 물론 계층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들이 식량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느냐를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도준호

“탈북 현상의 주 원인은 ‘자신감 상실’, 북한내 상층부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최고라는 자폐증적인 현상, 그리고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난입니다.”

도준호 제가 보기에는 오늘 토론은 현상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전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층부의 탈북 사태를 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탈북자들이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최근 상층부 내지 지식인들의 탈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현상으로 볼 것이냐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화되어가는 하나의 단계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특징적인 현상을 보면, 이들이 대개 해외에 거주했던 사람과 지식인들 특히, 김일성대학을 나온 사람들과고, 또 북한의 권력자들과 가까운 자녀나 친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감 상실’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식인들이 지금까지 북한 사회가 가장 복되고 부러울 것이 없다고 선전하고, 이 세계에서 김일성 장군이 창시한 주체 사상이 어디 비할 데 없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과연 그러냐 하는 ‘자기 회의’가 생긴 것입니다. 黨 쪽의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보다는 오히려 전문 교육을 받은 테크노크라트들이 많은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신감 상실의 연장선 상에서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보니 북한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북한 내의 상층부에서는 아직도 19세기 초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최고라는 자폐증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탈북 동기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난입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사람 중심의 사상인데, 사람 중심에서 물론 사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물질적인 요소도 동시에 점령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인 요소는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고 경제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전에는 북한이 중국보다 경제



고영환

“80년대 말 러시아에서 시작된 개혁·개방인 글라즈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가 북한 관료층 특히, 외부 관련 부서들과 당에 심리적 영향을 주었고, 그 후 동서독의 통일, 루마니아 사태, 알바니아 사태 등이 북한 상층부에 충격을 준 것이 탈북 사태의 객관적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았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고영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환 80년대 말 러시아에서 개혁·개방이라는 글라즈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북한 관료층 특히, 외부와 관련 있는 부서들부터 시작해서 당에까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고, 그 후 동서독의 통일, 루마니아 사태 특히, 북한과 가장 비슷한 체제였던 알바니아 사태같은 것은 북한 권력 상층부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탈북 사태로 이어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인식이 증대되는가 하면, 19세기 말에 대한제국이 망하게 된 기본 원인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은 병치유신을 하고 서방에서는 근대화가 진행되었는데 북한은 나귀타고 삿쓰고 다니다가 국력의 쇠퇴를 가져와서 결국은 강대국에 병했던 현상이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총리급 이상이나 당비서같은 사람들과 외국 출장을 다니면서 북한이 이러한 식으로 하면 결국은 안된다는 인식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는 뛰고 있는데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분을 꼭 닫고 있으니 언제 따라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된 궁극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분을 열어놓고 자본이나 첨단 기술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경제는 희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여기에 동구권 사태까지 겹치다 보니 상층부에 올라갈수록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좌절감과 체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당에서도 기본조직지도부라든가 중앙의 기본 부서들과 군 장성들, 또 안전보위부같은 것은 동서독 통일, 알바니아, 그리고 루마니아 사태를 보면서 체제가 죽으면 자기들도 같이 죽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 의

해서 통일되거나 3국에 의한 외압 통일이 되는 경우, 자기들은 죽기 때문에 체제가 위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정일 정권과 끝까지 묵숨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런 층의 이탈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외교부 쪽이나 대외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개혁·개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설령 체제가 무너진다 해도 설 자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1988, 89, 90, 91년도에 외국에 나가 있었던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외국에서 익힌 외국어로 번역일을 하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온 것은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앞날에 대한 회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수구 세력에 비해서 힘도 없고 늘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에 비해서 탈북자 수가 현저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탈북자가 서서히 증가하리라는 것만은 하나의 객관적인 분석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정민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김일성 사망 후 정권 변동기에 따르는 이완 현상, 체제에 대한 허탈감 등이 정권 이양과 더불어 나타난 것 같으나, 그것을 하나의 체제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상층부 인사들의 탈북이나 이탈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민 체제의 변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 상에서 오는 변화를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체제의 붕괴로 볼 수 있는데, 체제의 붕괴는 아직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김정일 정권에 한해서 안보적 측면이나 정권 안정적 측면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권력이나 정권적 차원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홍성국

“최근 들어 탈북자들의 급증 원인은 북한이 전반적으로 자생력을 상실했다는 것.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설명입니다. 고영환 선생님의 말씀은 조금 더 폭넓게 보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북자 현상은 현실이고, 이 현실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전반적인 영향이 북한의 대외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의 결과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계시는 홍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홍성국 90년대 들어서면서 연평균 50 명 정도로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이 전반적으로 자생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이것은 김성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탈북 보도면에서는 통계적으로 북한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시적인 또는 특수한 현상, 또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정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생력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북한이 정치적인 혼란을 우려해서 북한식 사회주의에 집착하는 사상 교육 훈련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나 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을 보면, 현재 김정일이 언론 사회 단체를 장악하고 어떻게든지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타격을 부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사상적인 면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악순환이 지속되고 결과적으로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 탈북자들이 속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북한에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김일성이 계속 통치를 해 왔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김

“탈북자 급증의 또다른 원인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확고한 비전이나 청사진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유혼 통치에 의존하면서 어떤 비전도 제시 못하고 거기에 더해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성만을 숭배하는 신정 정치를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고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통치하더라도 낙후된 북한 경제·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상당히 걸출한 인물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김정일이라는 새로운 정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됐는데, 김일성과 김정일, 또 과거와 현재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상대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교하는 가운데 불평불만이 팽배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성의 유혼 통치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현재 과거식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또는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탈법적인 현상 또는 질서의 일탈 현상들이 만연되는 가운데 김정일은 북한 주민의 원망을 받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탈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셋째, 앞에서 고영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나 청사진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가득권 층 혹은 엘리트 층에 까지 탈북 현상이 확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를 이어 집권하게 되면 아버지인 김일성 못지 않은 정도의 건설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혼 통치에 의존하면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북한의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비전도 희망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은 북한의 정치 사상적인 지주까지 흔들리

“지금 탈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유지와 변화의 동시적 추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80년대 중반과 지금의 북한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서도 경제, 개방에 대한 조항이 나타나고 하여간 북한이 뭔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치적 체제와 경제·사회적 변화간의 갭이 있고 이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는 조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의 탈북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체제 모순의 누적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체제 붕괴의 전조로 일반화시켜도 되지 않겠나 하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 홍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분석적인 차원에서는 당혹스러운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탈북 현상의 원인은 수구적인 입장 즉, 체제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자 하는 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유지와 변화의 동시적 추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80년대 중반과 지금의 북한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서도 경제, 개방에 대한 조항이 나타나고 하여간 북한이 뭔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치적 체제와 경제·사회적 변화간의 갭이 있고 이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것이 외부 영향을 받은 소위 엘리트 층의 오늘날 탈북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남한에서의 견해나 분석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북한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을 조이든지 무엇인가를 해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북한은 급격히 변화하기 어려운 체제지만 어떻든 변화의 몸부림을 통해서 생존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KEDO나 대외합영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헌법의 경제 조항 신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잘 결합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소위 말하는 개방 또는 개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탈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가 나왔습니다만, 종합하면 크게 개인적인 현상과 체제

적인 현상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항구 선생님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구 외국에 나가 있는 700여 명이 남한에 들오기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엘리트 층이나 필요한 계층만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체제 붕괴의 전조냐 아니냐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탈북 현상 발생에 대해서 홍 과장님의 개인적 견해에 의하면, 김정일의 권력 이양에 따른 중요한 변화가 체제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탈북 현상과 북한의 집권 세력의 안정성 문제를 간단히 짚고 나서 체제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훈 통치라고 하는 것이 김정일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권력을 승계하지 않고도 저렇게 확고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김정일 권력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견해가 맞다면, 북한은 이러한 탈북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하나 나올 수 있고, 전자의 견해가 통한다면 결국은 정권의 골격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타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권위주의적인 형태인 등소평 체제와 박정희 체제가 결합된 체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항구 탈북자 문제가 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치는 전조로 보는 것은 성급한, 즉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데, 인류

“우리가 북한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데,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군사력이 강한 집단이 군사력이 약한 집단에게 흡수 통일된 적은 없었습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60~70%밖에 안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망하는데 그냥은 아니고 전쟁이라도 일으키고 망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안보 논리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군사력이 강한 집단이 군사력이 약한 집단에게 흡수 통일된 적은 없었습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60~70%밖에 안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망하는데 그냥은 아니고 전쟁이라도 일으키고 망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안보 논리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을 봄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잘못에 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북한을 너무 과소 평가한다는 것과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정일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탈북 현상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항구 탈북 현상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서도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외무장관을 지냈던 최덕신과 최홍희도 장군 출신인데, 그런 사람들을 모두 북한에 데려다 놓았다고 북한이 남한은 아예 망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회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런 현상과 소위 말하는 반정부 운동이 결합이 되어서 한국에 민주화를 회복시켜 놓았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패턴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상당히 관심 거리입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탈북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항구 북한 정권은 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준호 현재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 위에 최근 수재난과 북한 엘리트 층의 탈북 증가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한 지도층에게 개방을 촉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

“현재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 위에 최근의 수재난과 북한 엘리트 층의 탈북 증가는 북한 지도층에게 개방을 촉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북한 경제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달러 부족에서 모든 것이 파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북한 경제난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달러 부족에서 모든 것이 파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러는 교역과 개방을 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농업 생산력 증가를 위해 기계나 장비를 도입하려 해도 달러가 필요하고, 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을 촉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하나의 사례가 국제 사회를 통해서 식량 구호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김일성시대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이나 국제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쌀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개방의 중대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군부가 제동을 걸고 나와 북한은 이제 외국 원조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방을 주창하는 실용주의파와 신중한 입장을 취한 군부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김정일이 그런 갈등에 견뎌내지 못하고 정권 자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냐가 초점인데,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불안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자체는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향적인 개방으로 갈 것인지 개방에 대해 더욱 반동적으로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영환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정일 정권의 적어도 상층부 쪽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난과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통제를 이전 시기보다 더 가혹하게 하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하부 에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민 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홍성국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비교 의식의 발생이 북한 주민들의 정서 상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의 안정도에 관해서는 이항구 선생님이나 도준호 부국장님 말씀대로,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비교 의식 발생이 북한 주민들의 정서 상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직 구조상 특히, 체제상 그런 안정도가 보장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안정성이 영구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정권은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는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직 구조상 특히, 체제상 그런 안정도가 보장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1988년에 서울에 왔는데 1990년 어느 학술회의에서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은 무너진다는 분들이 90%였습니다. 죽은 후 3개월 이내에 김정일은 정권을 내놓는다고 다들 얘기했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 “저 사람은 아직 북한 물이 덜 빠진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는 그들을 붕괴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통일이란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느 한 체제가 망해야만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중무장 집단이 스스로 정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대북 전략에서부터 정책이 바로 있어야 했습니다. 통치 집단인 당과 군에 썩기를 막아야 했고, 주민들은 분리시켜 놓았어야 했었습니다.

사회 지금 김정민 선생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과거보다는 최근에 들어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사 작전입니다. 한 세미나에서 독일에 가서 2년간 연구하고 왔다는 경제 부처의 모 관료가 나와서 지금 이 자리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곡물과 석유, 그리고 구소련에서 들어가는 무기 등에 대해서 외교적인 압력을 넣어 북한 무너뜨리는 정책을 논해야 되는데, 학자들은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통일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기보다는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호 인적·경제적 교류나 간접 교역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對南 무역 비중이 벌써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제정치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국가간 관계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반드시 남북한간 경제 교류 협력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경제 부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 교류의 목적이 우리 민족의 공동 에너지 개발과 부족한 부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제 경쟁시대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끈질긴 설득과 이해시키기를 반복한다면 북한은 남한의 경제 환경에 동의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되면 그 관계를 단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관계를 단절하려면 그만큼 엄청난 내부적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선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문화 교류를 하는 등,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점차 의견이 서로 수렴·통합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남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단일 정부가 수립되는 시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김정민 그것은 북한에서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남북한간 경제 교류 협력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경제 부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교류 반대 입장은 결국 체제 불안을 느낀 나머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남한의 우수한 대기업체들이 '달래주기 방식'으로 경제 교류 협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 교류의 목적은 우리 민족이 공동 에너지를 개발하고 부족한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제경쟁시대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끈질긴 설득과 이해시키기를 반복한다면 북한은 선진 과학 기술로 준비된 남한의 경제 환경에 동의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회 교류를 안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도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가고자 하는 정책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민 북한은 과거 80년대 중반부터 서방 세계 시장과 교역을 널리하게 되었고, 합영법이 나온 이후에도 일본이나 홍콩, 서독 시장, 체코 국제박람회도 다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보면, 사실상 김정일 정권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잠재적인 것이고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을 뿐입니다. 북한 정권의 구조상 북한 정보의 흐름은 수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수평적인 정보 교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 자체가 군부는 군부대로 당은 당대로 전부 독립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북한이 상당히 잠재적인 불안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지만, 현재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다시피 직접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KEDO라는 국제 기구를 통한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북한이 받아들인 상태이고, 현 세계적 정세를 보면 남한 외에는 북한이 원조를 받을 나라가 없습니다. 현재 북한이 받고자 하는 원조가 엄청난에도 불구하고, 세계로부터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북한이 인식하지 않겠는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한도 제로섬(zero-sum)적인 대립 관계를 수정하고 북한도 이런 것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인식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당분간 안정되어 있고 그 구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견해도 비슷합니까?

홍성국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보면, 사실상 김정일 정권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잠재적인 것이고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입니다. 북한 정권의 구조상 북한 정보의 흐름은 수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수평적인 정보 교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 자체가 군부는 군부대로 당은 당대로 전부 독립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북한이 상당히 잠재적인 불안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안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전면적인 붕괴로까지는 안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붕괴의 씨앗을 안고 있는 것이 북한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개 한 나라의 체제에 위기가 오는 것은 지배적인 가치 체계와 사회 하부 구조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역기능적인 현상인 병리 현상을 보일 때입니다.

“북한이 체제 위기의 출로를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 의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개방해야 북한이 산다고 그러니다만, 북한은 개혁·개방도 필요하나 굳이 그것만이 살길이라는 견해는 아닙니다. 요즘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과 징후들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론적인 문제만 가지고 걸들면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경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주체 사상과 하부 구조인 경제간의 아주 심각한 갭의 발생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갭이 김정일의 정권 권력 계승과 맞물려서 과연 체제의 유지 내지 재생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구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출로를 찾을 것인가입니다. 그 출로를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 의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개방해야 북한이 산다고 그러니다만, 북한은 개혁·개방도 필요하나 굳이 그것만이 살길이라는 견해는 아닙니다. 요즘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과 징후들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박연하게 이론적인 문제만 가지고 걸들면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개혁·개방 문제는 벌써 80년대 중반에 나온 것입니다. 1985년에 호요방이 북한에 가서 중국식으로 개방하라고 권유했는데, 그때 김정일은 우리는 중심이 약해서 문을 열면 금방 자본주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호요방이 그래도 개방해라 하니까 그러면 두만강쪽 나진·선봉지구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얘기한 것이 녹음되어 나온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지구라는 것이 북한만 사는 세계가 아니므로 교류를 해서 선진 자본이나 기술을 받아 오자고 하면서도, 그들이 현재의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 우선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 붕괴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찾아서 개혁과 개방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개혁과 개방의 선을 어느 정도 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소생할 수 있는 단계적 수순을 전부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징후가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무력부가 제2경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무력부 직할의 군이 있습니다. 평안남도 회창군은 완전히 군복 입은 사람이

“현재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지구라는 것이 북한만 사는 세계가 아니므로 교류를 해서 선진 자본이나 기술을 받아 오자고 하면서도, 그들이 현재의 난국을 뚫고 나가기 위해 우선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 붕괴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찾아서 개혁과 개방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개혁과 개방의 선을 어느 정도 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소생할 수 있는 단계적 수순을 전부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징후가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군당책임비서이고 군인민위원장입니다. 이런 장후를 봐야 합니다. 또 요즘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징후 가운데 하나는 ‘소왕청 전위군 창조운동’입니다. 김일성이 최초로 소왕청 유격 지구를 만들었는데, 소왕청 유격 지구처럼 각군에서 자생하고 자기 무장하고 자위할 수 있는 운동이 숭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개방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나가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고 “우리 식으로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전부 망한다. 개혁·개방한다고 하는데 나진·선봉지구에 4억 달러밖에 못한다고 한다. 합영법을 만들어왔지만 북한이 내국법 등 다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안 들어가 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왕청 전위군 창조운동’ 같은 것이 북한 전역으로 퍼지니까 석달 배급을 안 주어도 북한은 생존합니다. 그쪽의 현실적인 특성과 현재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회 이 선생님 말씀은 지금 자립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위기로 안 간다는 말씀입니까?

이항구 그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북한이 현재 무슨 대안을 찾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그 정도면 저쪽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오히려 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부너지는 방향으로 가겠는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홍성국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북한에서 당에 경제개혁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경제개혁부가 생겼다는 정보가 있을 후,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개혁’ 이라면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상당히 성급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 북한에서 당
에 경제개혁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경제개혁부
가 생겼다는 정보가 있는
후, 많은 전문가들이 ‘경
제 개혁’이라면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
겠느냐 하고 상당히 성급
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
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에 현재 경제개혁부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단순히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나름대로 대수술을 하고 있는 하나의 조직적
인 노력일 뿐이지, 북한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다고 볼 수는 없
다”고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서 나오는 것을 눈여겨 보니까 공장과 기업소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
했습니다. 북한에는 연합기업소와 종합기업소가 있고 그 밑에 공장
이 있는데, 과거의 종합기업소가 연합기업소로 승격·조정되었습니
다. 어떤 공장은 연합기업소로 있던 것이 종합기업소로 오히려 그
규모가 격하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 격하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북
한과 같은 고도의 관료 사회에서 하나의 공장 기업소가 축소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지배인이나 기사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사실상 축소된다는 것은 자기의 권한 범위가 도려내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20여 개씩 나
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3대 제일주의라는 농업제
일주의, 무역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의 완충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대수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은
나름대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노력은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그런데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죽는다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1994년도에 농촌 테제를 하면
서 그 때 수술한 것은 1994년 12월에 과거 숙천군에 있는 협동 농장
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전인민적으로 소유화시켰습니다. 즉, 과거에
있던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으로 소유화시켰던 것입니다. 숙천군에
있는 약 20여 개 농장을 전부 합쳐서 전인민적으로 소유화해서 숙천
군 농업연합기업소라는 국영 농장을 만든 것입니다. 또 만경대구역
국영 농장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 개의 국영 농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북한이 중국
또는 베트남의 개혁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오히려

“나진·선봉 지역에 하나의 격리된 경제 특구를 조성한 것은 북한이 현재 개혁·개방을 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적으로 하지 못하고 나진·선봉에 철조망을 쳐서 격리 수용해놓고 2중 구조적인 경제 운용을 하려는 것은 결국 김일성의 모기장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중국과 같은 개방을 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때 하라는 이론입니다.”

전부 국유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집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김일성의 정책 노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사소한 변화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정책 또는 사상적 기초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의 문제에 있어서도 1984년에 합영법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지만, 1989년까지 북한은 중국식으로 개방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합영공업부 부장이었던 김성환씨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같은 개방 체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고, 합영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와서 나진·선봉 지역에 하나의 격리된 경제 특구를 조성한 것은 북한이 현재 개혁·개방을 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적으로 하지 못하고 나진·선봉에 철조망을 쳐서 격리 수용해놓고 2중 구조적인 경제 운용을 하려는 것은, 결국 김일성의 모기장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중국과 같은 개방을 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때 하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극히 일부분인 나진·선봉에서만 제한적인 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결국 외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진·선봉에서 제한적인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준호 북한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완충기 동안에 3대 제일주의를 통해서 북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진·선봉지구를 특구로 지정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 들여 북한 경제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완충기 동안에 3대 제일주의를 통해서 북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진·선봉지구를 특구로 지정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 들여서 북한 경제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전인민적 소유 방식인 만경대국영농장의 경우 말은 전인민적 소유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것이 종래보다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홍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인민적 소유 방식인 만경대국영농장의 경우 말은 전인민적 소유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것이 종래보다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진·선봉지구도 처음에는 36억 달러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프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약된 것은 겨우 2,000만 달러입니다. 북한이 당초에 생각했던 전략적인 요충지인 나진·선봉지구에 모기장을 친다든지 제한적인 자본주의 실험을 하게 되면, 많은 자본이나 기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2~3 년이나 4~5 년 정도 자체 조정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법들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방·개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 체제가 아니라 김정일 체제 자체 존립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회 지금 말씀은 북한의 자립 경제적 차원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急轉直下하게 된 것은 구소련의 붕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이 80년대 후반에 경제 성장률과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고, 두 자리 수의 성장이 일어나야 경제 활성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그런대로 현상 유지를 해왔는데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急轉直下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이 구소련과의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중국의 경제 화 결제 요구가 있는 후부터, 북한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북한 경제 체제의 대외 의존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자립 경제를 외치지만

“지금 북한의 현실적 사태를 놓고 보면, 김일성이 죽은 후부터 일체의 모든 행사가 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 창건 50돌 행사가 군사 퍼레이드로 진행되었고, 당 장성들의 지위가 당 비서들보다 올라가고, 인민무력부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김정일 행사의 거의 80%가 군부에 의존한 군부대 시찰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 의존적 성격이 강했고 완충기라는 것이 대외 의존성의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고영환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환 앞에서 김정민씨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현성일이 속해 있었던 외교부의 경우는 3등 서기관부터 비서국 비준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현성일 씨가 3등 서기관이었는데 80년대같으면 탈북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80년대에도 그런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대사와의 갈등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서기관이 대사 부인의 얼굴을 긁어서 핏자국을 냈다는 이유로 도망치려고 했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부터는 80년대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붕괴의 조짐, 혹은 불안정의 조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말에 김일성이 종심론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즉, 중국은 종심이 깊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사방에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는 등 종심이 얇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모기장 이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적 사태를 놓고 보면, 김일성이 죽은 후부터 일체의 모든 행사가 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 창건 50돌 행사가 군사 퍼레이드로 진행되었고, 당 장성들의 지위가 당 비서들보다 올라가고, 인민무력부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김정일 행사의 거의 80%가 군부에 의존한 군부대 시찰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북한에는 계엄령이라는 말이 없지만, 일종의 계엄령 사태로 가장 움직이기 쉽고 명령이 직선적으로 하달되는 군부에 의해서 위기 사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권 사태가 벌어진 후에 북한이 가장 큰 교훈을 찾는 나라들이 동독, 루마니아, 알바니아인데, 이에 대한 사태 분석을 매우 세밀하게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제사업부, 통일전

“북한은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체제 개혁은 절대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자기의 선임자를 부정해야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세를 보아도 레닌까지 꺾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쳤지 레닌까지는 못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일 후임자가 나와서 김일성을 치면 쳤지 김정일이 김일성을 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선사업부, 대외정보조사부 등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방책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대외 경제적이 아니라 자력갱생적 경제 정책이라고 했지만, 원료, 식량, 코크스 탄이라고 하는 3대 전략 물자를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경화 결제, 동구권 시장의 붕괴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경제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나진·선봉지구 개방이라는 짓을 내 놓았습니다. 북한은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체제 개혁은 절대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자기의 선임자를 부정해야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세를 보아도 레닌까지 꺾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쳤지 레닌까지는 못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일 후임자가 나와서 김일성을 치면 쳤지 김정일이 김일성을 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은 할 수 없고, 두번째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정보를 너무 극도로 통제하다 보니 북한 주민들 사이에 면역성이 없습니다. 아직도 남한에는 청계천 판자집이 있고 동두천에서 미군의 구두를 닦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개방을 할 경우 정보가 흘러 들어오면 이 정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주 변칙적이며 극히 제한적인 개방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경제에서 파생되는데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의제인 북한의 붕괴가 시작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단기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이미 ‘processing’이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지금 고영환 선생께서는 북한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

“아주 변칙적이며 극히 제한적인 개방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경제에서 파생되는데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의제인 북한의 붕괴가 시작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에, 붕괴로 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는 반대로 북한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붕괴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고영환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북한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의 대항적인 정책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전임자를 배격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모택동 노선에 대한 등소평의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하나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북한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책을 비교해보면 김일성 생전 시절에는 중국과 같이 전과 홍의 대립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전과 홍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전충하느냐가 전부였기 때문에 비교적 큰 사고 없이 북한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북한 제한적인 개방 하에서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절충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한 개방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항구 현재 북한은 3년간 완충기를 두고 있는데 최대 과제가 외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받을 對日 청구액을 약 120억 달러로 잡고, 미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얼마나 외화를 끌어 들일 수 있느냐를 보아서 1996년을 넘기고, 1997년부터 차기 장기 계획에 착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를 어디서 얼마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또 끌어 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여 실현시키느냐에 그들의 운명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못세우니까 또 완충기를 두어야 합니다.

사회 이 선생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현재 아직 대안적인 개방이라든가 정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정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노동당 간부 정책의 원칙은

“쌀이 부족해서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체제 붕괴로 직접 이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작년 수해로 논밭의 많은 면적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것으로 인해 식량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식량 부족을 절대적으로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지만, 과거에도 역시 식량이 계속 부족했었기 때문에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외에 파견되는 사람은 누구든 비서국에서 비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북한 내의 비서국 비준 대상 간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비준을 받고 해외에 파견되었다가 북한 내에 들어가면 비서국 비준 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점과 지금 정권 안정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쌀이 부족해서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체제 붕괴로 직접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입니다. 작년 수해로 논밭의 많은 면적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것으로 인해 식량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식량 부족을 절대적으로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지만, 과거에도 역시 식량이 계속 부족했었기 때문에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식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북한의 1994년도 군비 예산이 북한 전체 예산의 11.6%였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50% 이상이 넘는다고 봐야 옳습니다. 북한의 산업은 오로지 군수 산업이지 일반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만약에 굶어 죽을 정도가 되면 군비 예산에서 단 2~3%만 떼도 2,000만 북한 주민 한두 달 먹일 식량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문제 하나만으로 북한 체제 위협까지는 바라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체제와 김정일 정권 사이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체제가 무너진다고 할 때, 김정일 정권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그 자체는 지도력에 있어 김일성처럼 카리스마적인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앞으로 좀 더 관망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습니다. 북한 군부 쪽에서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초반부터 그가 당과

“대체적으로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제가 추측·분석해보면, 역시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군부이고 군부는 현 체제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물러난 후에도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많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 현 체제는 유지될 것이므로 체제 붕괴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를 기본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국가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체한 것만 통계학적으로 분석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 이내에 교체하곤 했는데, 마치 북한 경제의 몰락이 국가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김정일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도 과거 김일성이 국가 경제를 이끌 때가 훨씬 낫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김정일 정권의 장래 및 불투명성은 다소 인정되지만, 체제 붕괴라는 관점에서 아직 부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 경제의 기본 문제는 ‘코크스’ 공급에 있습니다. 호미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우선 철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에 의해서 중공업의 골격은 서 있지만, 군수 공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철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첫째가 코크스 공급 문제이고, 둘째는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할 수 있는 석고의 공급입니다. 석고가 창성 등 서너 곳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20% 이상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거의 다 중국에서 석고를 들여와서 시멘트와 마그네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북한은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또 비철 금속 녹여내는 원료의 비중도 90%를 중국 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결국 북한 경제는 무너집니다.

사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결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제가 추측·분석해보면, 역시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군부이고 군부는 현 체제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물러난 후에도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많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 현 체제는 유지될 것이므로 체제 붕괴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현재 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식량 부족,

“탈북 현상이 북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의 중요한 부분은 우선 북한 체제의 모순점을 오랫동안 체험했다는 점, 김일성 사후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으로 미래를 아주 흐리게 본다는 점,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의 존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갈등과 맞물려서 주위 환경이 따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에너지 부족, 군사비의 비중 등으로 인한 위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엘리트 내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북한의 위기가 엘리트 내부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이 갈등이 더 많은 탈북 현상으로 이어지고, 이 현상이 북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내재하고 있고, 그 가능성의 중요한 부분은 우선 북한 체제의 모순점을 오랫동안 체험했다는 점, 김일성 사후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으로 미래를 아주 흐리게 본다는 점,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의 존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갈등과 맞물려서 주위 환경이 따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성혜림씨 일가가 탈북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결과의 주요 원인은 한국에 있는 성혜림씨 언니 아들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누설된 일련의 자료들이 북측에 알려졌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남한의 언론들이 너무 설쳐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타까운 문제인데, 성혜림씨 일가의 입장에 선다면 이렇게 함부로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을 탈출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이것을 남한에서 먼저 터뜨려 놓으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중국 연변 쪽이나 在러 임업대표부 쪽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탈북이 어려운 것도 언론에서 “데려 올 수 있는 1,000 명이 있다거나 2,000 명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여 이들에 대한 감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이미지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책적 측면에서 이것을 문제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탈북 사건을 일찍 보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공개된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돼야 문제가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대응 방안까지 말씀해주셨는데, 도준호 부국장님께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 보면 남한 언론의 속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준호 우선,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부정적인 양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혜림 사건을 일찍 보도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당초 성혜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예정대로 공작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발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혜림을 데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나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불필요한 남북간의 긴장 관계 조성이라는 면에서 우리 언론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데려오는 것보다 데려오지 않고 이렇게 터트림으로 해서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변 안전이 문제이지만 이것은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성혜림이 정보 가치가 없고, 단지 한때 김정일이 데리고 놀던 여자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혜림의 아들인 김영남입니다.

그가 북한의 황태자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장남으로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700 명이다, 800명이다” 하는 언론의 보도도 그것을 보도함으로써 생기는 우리의 관심과 국제 기구의 관심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북한이 더 경계하고 달려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공개된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돼야 문제가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탈북자 문제 정책에 대해서 큰 변화를 가져왔던 하나의 사건은, 러시아 벌목공 문제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

“탈북자에 대한 또다른 문제점을 제기하면, 아직도 우리는 ‘귀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냉전 시대때 용어일 뿐더러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 동포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동포라는 말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주장은 북한이 이미 장기적으로 붕괴 단계에 들어갔고, 그것은 우리 중심의 통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은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별복공이나 탈북자는 우리가 데려오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방향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의 참담한 실상을 시리드로 보도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별복공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영양가있는 사람은 데려오고, 없는 사람은 안 데려오는 우리 정책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해야지, 기본적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면 비공개된 상태에서 하느냐 할 때는, 우리 사회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북한 대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한 신문은 신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너희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남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 대선을 앞두고 누구는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또 누구는 김대중씨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관점도 각각이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기본적 관계를 보면, 민주주의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혼돈(chaos)한 상태로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에 대한 또다른 문제점을 제기하면, 아직도 우리는 ‘귀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남한에 귀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한에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왔으니까, 남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따르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냉전 시대때 용어일 뿐더러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 동포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동포라는 말도 정확한 것이 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50년 이상 우리와 전혀 다른 사회주의 체제 속에 살아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정착금 1,400만 원을 주고나서 “너 어디 가서 전세방이나 하나 얻어서 살아라. 남한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돈 벌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체제 적응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됩니다. 저의 주장은 북한이 이미 장기적으로 붕괴 단계에 들어가고, 그것은 우리 중심의 통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 북한 동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제3조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한다”는 것만 있지 북한 주민에 대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남한에 있는 동포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동포보호법에 핵심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 적어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50년 이상 우리와 전혀 다른 사회주의 체제 속에 살아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정착금 1,400만 원을 주고나서 “너 어디 가서 전세방이나 하나 얻어서 살아라. 남한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돈 벌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체제 적응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들이 불안해 할 필요는 없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나 귀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처음에 돈을 1,400만 원 주니까 남조선은 돈이 많은 데라서 이렇게 주는구나 싶어 마음대로 쓰다가 몇달 지난 후에 거지가 되어서, 강도질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자본주의라는 것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자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 하고, 그래도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는 8시간 떼우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북한보다도 살기가 더 힘들다고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체제 적응 훈련과 기술 훈련을 동시에 시켜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적응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도 체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수용하는 것은 문

“우리 한민족의 국민 건설 차원에서의 깊은 정책적 고려나 운동은 국민 국가 건설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에게 남한은 50년 동안 미제의 식민지·괴뢰라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너무 ‘폐쇄적인 自主’지만 나름대로 자주를 주장해왔고,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도준호 부국장님께서 우리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정치학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건설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사회 통제는 잘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이 하나의 같은 동족이다”라는 국민 건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나 남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북한 동포들은 통일이 되어도 ‘제3세계 시민’으로 계속 취급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준호 부국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한민족의 국민 건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깊은 정책적인 고려나 운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국민 국가 건설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에게 남한은 50년 동안 미제의 식민지·괴뢰라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너무 ‘폐쇄적인 自主’지만 나름대로 자주를 주장해왔고,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지금 줄부같이 돈 좀 벌었다고 북한 사람들을 완전히 거지나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천명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홍성국 제가 정부에 있으니까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북이 이미 50년 이상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남북간의 심리적인 경제·사회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

“만일 통일이 되었을 경우, 의식 구조의 차이때문에 남북한 사람들간에 자연적인 충돌·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귀순한 북한 동포들의 갈등도와 유사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는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동질화시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들이 수직적이고 소극적이고 일원적인 데 반해서, 우리는 수평적이고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자기 책임을 질 줄 알고 이런 가운데 다원화되어 있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통일이 되었을 경우, 이러한 의식 구조의 차이때문에 남북한 사람들간에 자연적인 충돌·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귀순한 북한 동포들의 갈등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동질화시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 구체적인 동기나 정책이 있습니까?

홍성국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본적인 원칙은 앞에서 도준호 부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응 훈련’입니다. 정착금 따위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사회에는 자유가 있되 책임도 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을 지지만 네 자유대로 하라”는 대원칙 속에서 이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 훈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50년 동안에 자기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훈련하는 비용을 제공하고 또 직업도 알선해주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적응해나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남한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여기에 고영환 선생님이나 또는 김정민 선생님도 계시지만, 귀순 동포들 가운데는 이것을 악용하거나 또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경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정착금을 주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도 영세민과 상당히 소득 수준

“북한에서 탈출해왔다고 해서 특별 취급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동등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나. 내가 사선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응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탈북자들의 불만도 생겼습니다.”

이 낮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적·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해왔다고 해서 특별 취급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동등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나. 내가 사선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응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탈북자들의 불만도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그 사람들(탈북자들)이 얼마나 일에 성실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고개를 돌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회 이항구 선생님께서 결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구 이질적인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을 우선, 우리의 가치 의식을 갖도록 교육해주고,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해준 다음에 사회에 내보내야 하는데, 나오면 2년 동안 그저 관리만 한다고 줄줄 따라 다니다가 풀어주어서는 안됩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탈북자 교육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련해서 기술 교육, 직업 교육과 병행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가치 의식을 민주주의적으로 바꾸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홍성국 지금 현재 그것을 구상해서 구체적으로 이리 저리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북 현상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적어도 북한 김정일 정권의 위기와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에도 상당한 긴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탈북 현상이 앞으로 우리 통일 전략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이전까지의 정책과는 아주 다른 통일에 대한 철학적이고 비전있는 정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말로는 ‘흡수 통일’ 하지 않고 ‘합의 통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

“말로는 ‘흡수 통일’ 하지 않고 ‘합의 통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철학도, 국민의 여론 계도 작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 前 단계로서의 탈북자 현상 문제에 대해서 비전있고 철학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재 그런 철학도, 국민의 여론 계도 작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준호 부국장님도 저도 모두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앞으로 통일 문제 특히, 통일 문제 前 단계로서의 탈북자 현상 문제에 대해서 비전있고 철학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고영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후에도 우리에게 가장 악몽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문제의 하나가 북한 주민들의 맹목적인 對南 적개심입니다. 우리가 700 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처지에 있는데, 2,000만 명을 어떻게 포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러시아나 중국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붙들려가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가는 경우, 방송으로는 나오라고 그러더니 나오니까 완전히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받아들여지도 않겠다. 더럽기 그지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 되면 북한의 체제 강화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서독 사태에서 보면 결국 급격히 늘어난 脫동독 현상으로 동독이 무너졌는데, 사실상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당장 그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아까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 우리 동지들이 많아지고 탈북자 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결국, 그것이 북한을 개방화로 떠밀거나 붕괴를 강하게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월북 주민에 대해서 의거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귀순자라고 합니다. 말 자체부터 북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거부감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脫북자들을 잘 돌봐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한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남한 정부밖에 없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맹목적인 對南 적개심을 없애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對南 적개심이 없어지지 않은 채 통일이 되면 밤낮 붙어 싸울 것입니다. 게다가 돈 문제, 재산 상의 차이가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가치 의식을 바꿔 놓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상부터 바꿔 놓아야 통일로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민족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정부만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정부가 계획을 잘 세우고 쏘국민 특히, 지식층들이 합심하여 정부를 도와서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견의 일치(consensus)를 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항구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가치 의식을 바꿔 놓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상부터 바꿔 놓아야 통일로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민족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레닌이 구소련에서 10월혁명을 할 때, 크렘린 궁전을 점령하는데 72 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적군과 백파간에 思想戰이 전개되고, 그 사상전이 物理戰化하여, 결국 시민전쟁이 일어나 2,0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탈북자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큰일납니다.

탈북자 문제는 정부만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정부가 계획을 잘 세우고 쏘국민 특히, 지식층들이 합심하여 정부를 도와서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오늘 김정민 선생님과 고영환 선생님 두 분을 뵙게 되어서 반가웠고,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統